

죽음을 무시하기 보다는 인정하라.
죽음 역시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이므로.

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



죽음을 무시하기 보다는 인정하라.

죽음 역시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이므로.

죽음을 무시하기 보다는 인정하라.

죽음 역시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이므로.

죽음을 무시하기 보다는 인정하라.

죽음 역시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이므로.

죽음을 무시하기 보다는 인정하라.

죽음 역시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이므로.
